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임원선거 공보물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이 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전임 위원장의 해고를 보고 법원본부장을 결심했다는 사람

2009년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3개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이명박 정권은 그 주역이었던 법원노조 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급여 삭감과 징계, 조합원 탈퇴가 줄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해고된 위원장의 뒤를 이어 통합 후 첫 법원본부장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눈비 맞는 자리에 있던 사람, 전호일이었습니다.

양승태 구속,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고

국민이 응원했던 날

양승태 구속 투쟁의 맨 앞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법원 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원 설치를 선언할 때에도 그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민중으로부터 박수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입니다.



2030 청년조합원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이제는 노동조합의 주력도 2030 청년조합원, 처음엔 낯설어하던 젊은 조합원들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17년 만에 처음 시작된 청년조합원 설문조사, 2030 수련회, 과감한 간부 발탁, 전호일이 꿈꾸는 노동조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공무원노조입니다.

준비된 위원장 전호일



2018 설립신고 쟁취투쟁의 기획자

전국의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위원장의 단식이 1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차일피일 핑계만 대던 청와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노동부와 실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설립신고를 쟁취하고 대정부교섭, 행안부 정책협의체까지 실현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사람들은 “내 서울 가서 그거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떠났던 김태성을 생각했습니다.

분열 세력과 맞선 최일선에서 노동조합을 지킨 사람

2015년 공무원연금 직권조인 세력들은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제3노총을 만들기 위해 김태성이 속해 있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에서 탈퇴공작을 시도했습니다. 거짓선동과 감언이설로 분열세력의 기세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만든 노동조합인데!” 김태성은 뜻을 같이하는 간부들과 영도구지부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열세력을 물리치고 영도구지부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김태성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 그가 지부장이었을 때 부산지역 최초로 공무원장기재직휴가 조례를 쟁취했습니다. 6급 정원을 매년 2% 상향시켜 승진적체를 해소했습니다. 실력으로 믿음을 쌓아온 사람 김태성이 공무원노조의 교섭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실력은 김태성



전호일1 김태성

2015

2020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2015 - 2020 운명의 시계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합만 아니었다면

10만이 넘는 공무원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모였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정권과 야합! 직권조인을 하며 조합원을 배신했지만
부위원장 전호일은 거짓을 폭로하고 연금개악 반대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연금전쟁, 이번에는 전호일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왜곡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뛰어다녔던 사람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304개 단체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으로 묶어내고
'공적연금 강화' 프레임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전호일이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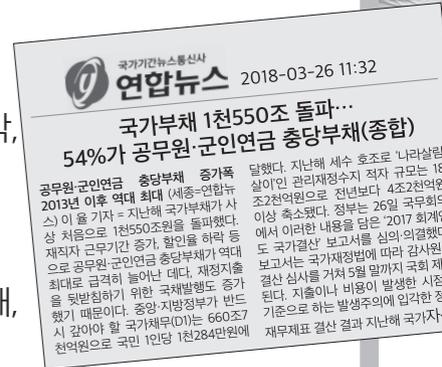
그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연금개악, 기억하시나요?

퇴직자 연금 동결, 재직자 수익비 40%가 삭감된 2015년 개악,
그들에게 다시 연금을 뺏길 수 없습니다.

연금부채 1천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향후 76년간 지출될 금액만을 계산한 가상의 금액인 총당부채,
이걸 실제 부채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또 깎는다고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OECD 1위, GDP 대비 노후 공적지출 OECD 평균 9.3% vs
한국 0.9%,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약 1.5배) 보다 낮아진 공무원연금 수익비(1.48배), 이것이 공무원연
금의 현주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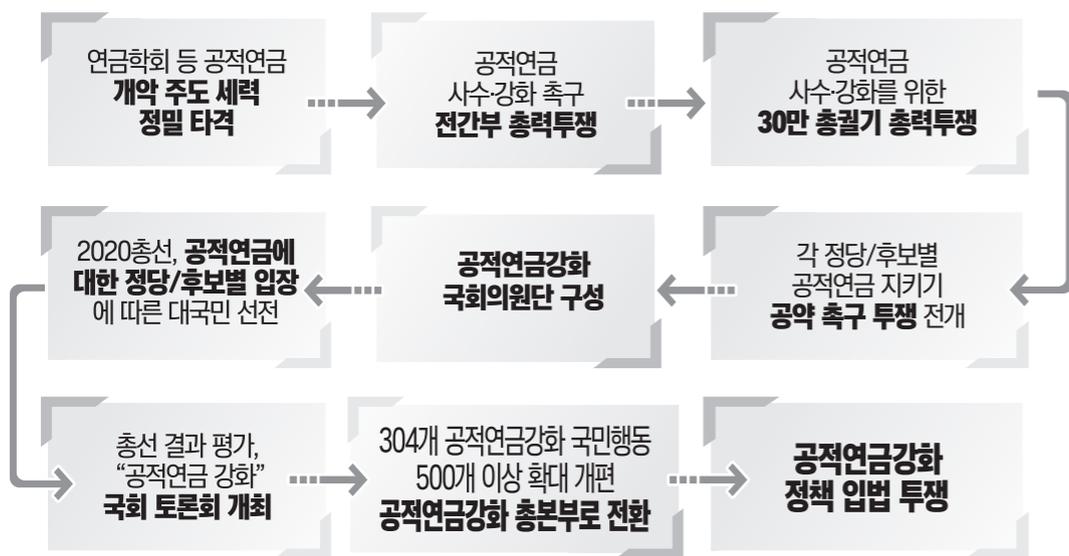
공적연금강화 총본부 건설, 이번엔 기필코 연금개악 막아내겠습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을 500개 공적연금강화 총본부로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전략1 **연금전략**

공적연금 강화, 폭풍 같은 투쟁으로 연금전쟁 이기겠습니다

인수위 구성, 연금 전략 TF 가동



공적연금계약의 악순환 차단

- 공무원연금공단 대의원 제도 도입 및 의결기구 노조 참여
- 정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이행(공무원연금법 제72조)
- 60세 정년, 65세 연금지급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대책 수립
- 공무원 및 배우자 노인기초연금 지급대상 포함

전호일1 김태성

또 다른 전쟁, 임금삭감 막겠습니다!

정부의 임금삭감 시나리오

2015년 연금계약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22년 61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순차적 연장됩니다. 반면 정년은 60세. 이제 2년 뒤면 퇴직 후 연금도 바로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부는 고령화 문제와 노동력 감소, 소득공백 문제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 퇴직 후 재고용, 직무급제 등 임금삭감을 수반한 정년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번 선거는 연금계약과 임금삭감 막을 사람 뽑는 선거

공무원노조 10기 집행부의 임기는 2020~2021년, 이 기간 동안 연금계약과 임금삭감식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는 정부와의 한 판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다가올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길 사람, 그 기준은 무엇보다 경험과 투쟁력입니다. 지부장, 본부장, 부위원장 등 거쳐 풍부한 경험을 쌓고 투쟁력이 검증된 연금전문가 전호일이 책임자입니다.

성과급제 폐지 기본급화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도입 저지



전략2 임금전략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공무원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비상근무해도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은 4시간 이상 나가야 출장비 최대 2만원만 지급
우리도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하고 일반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각종 수당 적폐 척결

-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시간외 수당, 퇴직수당, 당직수당 등 인상
- 출장여비/급량비 제도 개선, 부당한 행정안전부 지침 폐기
- 공무원 임금 직접 교섭 매년 실시, 2020 대정부 교섭투쟁 반드시 승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 수당 현실화

- 매년 정부와 임금 직접 교섭! 공무원 보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100% 실현
- 퇴직수당 현실화(민간대비 39% => 100%)
- 호봉 상한제 및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무지내 여비규정 개정(4시간, 2km 이내 기준 삭제)
- 시간외 근무 시 급량비 개별 지급
-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 근무일에 해당하는 휴무 보장 및 수당 현실화, 전담공무원 채용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구분	현행	개선
9급 → 8급	5년 6월	3년
8급 → 7급	7년	5년
7급 → 6급	11년	7년
6급 → 5급	없음	9년

- 근속승진 제한하는 행안부 인사지침 폐기
- 5,6급 정원비율 확대로 승진적체 해소
- 전환직 6급 경력 및 승진최저 연수 100% 보장(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2)
- 기준인건비제도 폐지(공무원 정원확대)
- 5.1 노동절 휴무 법제화
-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
-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추진 및 악성민원 대응부서 설치 의무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정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외 수당 규정,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 ▶ 1시간 공제, 4시간 한도 폐지, 비상대기 실제 노동시간 인정
 - ▶ 시간외 수당 감액률 55% 폐지(근로기준법 적용)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7급 공무원 시간외 수당 기준 단가로 환산하면 7,006원 수준 감액률 55%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시, **7급 20호봉 1시간당 단가 10,500원 → 35,500원으로 인상**

전략3 청년전략

공무원노조, 더 젊어집니다

노동조합은 더 젊어져야 합니다.
조합원의 50%인 2030세대, 그들이 노동조합의 미래입니다.

임원, 대의원에 청년 할당제 도입

- 노동조합의 임원과 핵심 의결 기구인 대의원에 청년 대의원 의무 배정

1천명 청년 정책 패널 구성, 신속하고 정확한 청년 조합원 의견 반영

- 전국 각지의 청년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년 정책 패널 구성
- '고충사항, 직장문화 개선' 등 청년 조합원의 의견과 감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의견 수렴

경직된 조직문화 근절 운동 전개

- 지나친 사생활 간섭, 상사 모시기, 퇴근 눈치주기, 연가 눈치주기 등 문화로 포장된 잘못된 관행 근절

민원 근무자 보호, 악성 민원인 처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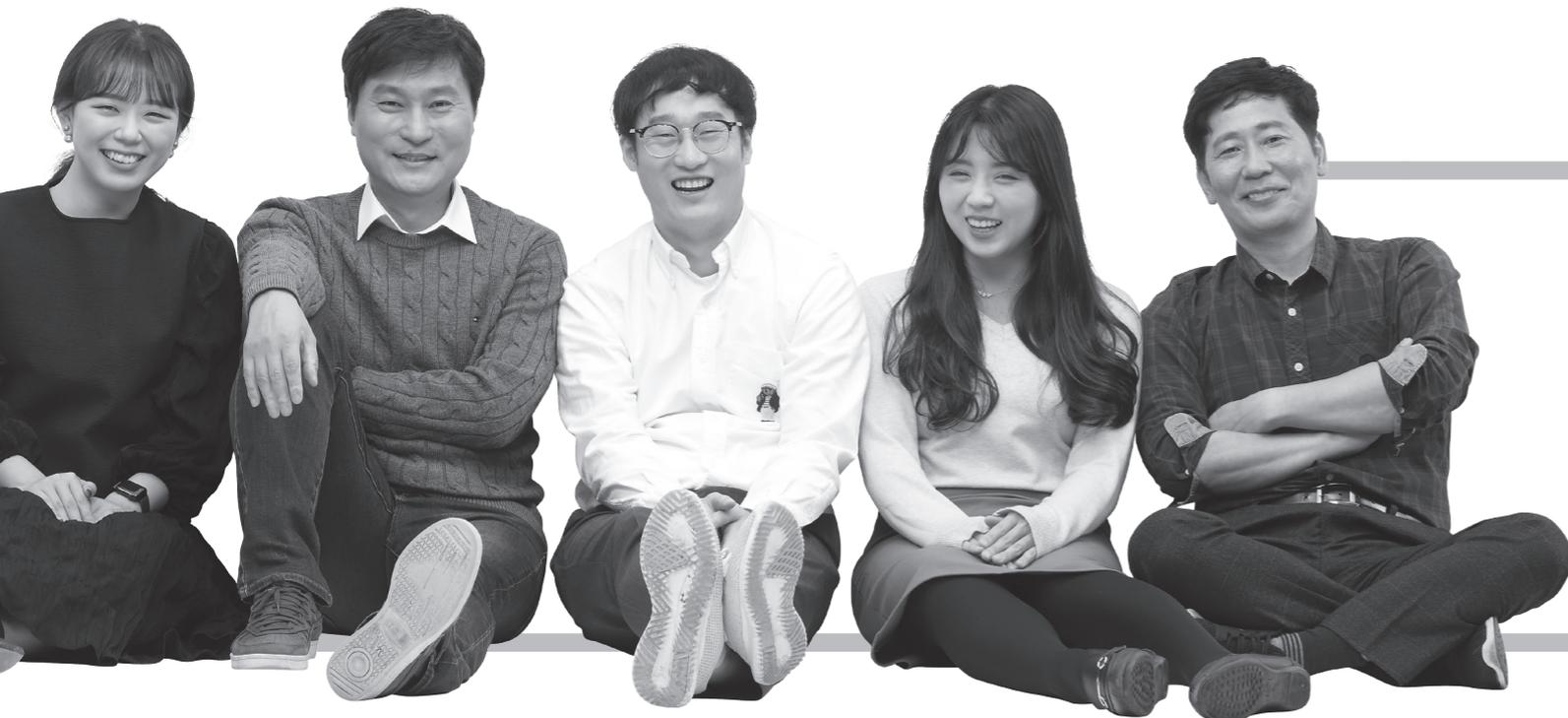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 사업, 민형사 소송 지원, 현실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청년 개발 휴가제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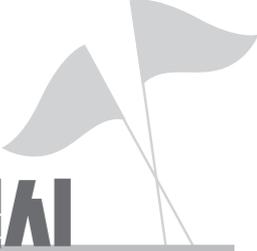
- 입사 5년차 힐링휴가제 도입, 청년 조합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청년 조합원 캠프, 사회 각계의 청년 노동자와의 연대 캠프

- 다른 직종의 청년 노동자들과 교류를 통해 우리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서로간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 나가는 기회를 마련



8~9급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교섭 실시



대부분의 2030 8,9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9급 1호봉 급여는 겨우 최저임금 수준, 2016년 입직한 9급 공무원, 30년 근무해도 퇴직 후 연금 140만원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에도 포함 안 되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최대 39%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 안 되는 것만 많은 8,9급 하위직 공무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전호일, 김태성은 정부와의 특별교섭을 통해 8,9급 임금/연금 상향 등 2030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4 조직강화전략

공무원노조가 크고 강해지는 만큼 조합원이 웃습니다

해직동지들 이제 정든 일터로!

- 20대 국회내 복직법안 통과
- 해직자 원직복직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투쟁 전개
- 해직 전 기간 (연금, 임금, 승진 등) 인정 요구
-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기록 말소 및 사면복권 추진

간부 육성/조직확대

- 노조법 개정으로 본부/지부 간부 전임활동 보장
- 조합원 실시간 여론 조사 시스템 구축
- 공무원노조 20만 시대 실현 : 소방/경찰, 미가입 개별 노조 등 적극 조직
- 지부장 전문 교육 과정 개설, 2030 청년간부 발굴
- 전문 교육위원 육성 체계 강화,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 편성

차별 없는 공직사회

- 장애인, 소수자 고충 해결, 노조 활동 적극 보장
- 소수직렬 상위직급 확대
- 경조휴가 현실화, 공로연수제 확대, 보건휴가 유급화

성평등 실현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보장, 대체인력 확보(정규직10% 이상 과정원 제도화)
-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에서 성평등 실현(유리천장, 유리벽 철폐)
- 육아휴직 수준의 난임휴직제 도입
- 성폭력 가해자 즉각적 직위해제, 피해자와 격리

직능본부 공통 사항

- 각 부처장관과 직접교섭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
- 국가직 처우개선(복지포인트 상향, 당직비 현실화 및 익일 휴무보장, 장기재직 휴가 실시 등)

국회

- 실무사무관제 도입을 통한 승진적체 해소

대학

- 대학 총장 직선제, 투표권 1인 1투표권 쟁취
- 교육부와 대학간 승진 불균형 해소

법원

- 사법부 예산편성권 확보,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 양형조사관제 도입, 노동법원 설치, 6급 조정위원 선발 및 조정팀(과) 설치
- 인원충원·상위직급 확보, 모든 직렬 승진적체 해소

교육청

- 학교 행정실 법제화
- 지방교육시설공단 설치를 통한 민영화 계획 폐기 투쟁
- 학교 시설관리직 인력수급 및 운영 대책 마련
- 교육감 및 교장 입후보 자격 개선

중앙행정기관

- 초과근무 총량제 폐지(시간외 수당 등 실제 근무시간 전액 지급)
- 승선직공무원 1일 1만원 이상 급량비 보장(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 24시간 이상 선박 승선 연구직 및 단속인력 근무시간 한시적으로 현업직 인정
- 17년간 동결된 연구직공무원 연구업무수당 인상
- 24시간 폐쇄병동 야간 근무 인력 증원, 24시간 구급 출동대기시간 근무 인정



전략5 사회개혁전략

공직사회를 바꾸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민중행정 참공무원 운동으로 국민적 지지 확보

- 참행정 실천대회 전국 확대를 통한 공공행정 발굴·실현
-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특혜 채용 등 부패 척결
- 의회 갑질 적극 대응, 근절책 마련
- 낭비성 축제 및 전시행정 근절, 행정절차 간소화
- 임기제 등 나쁜 일자리 폐지(기존 입직자는 전일제로 전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2020년 4.15 총선 전략

- 정당대표 면담, 조합원 요구사항 각당 정책질의 및 발표
- ILO 핵심협약 비준,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략팀 운영

정치기본권 쟁취로 100만 공무원 목소리를 당당하게 국회로!!

-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발의
- 위헌법률심사청구, 헌법소원 및 사법투쟁을 통한 정치기본권 쟁취
- 잘못된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복무규정 폐지
- 현실에 맞지 않는 복종, 품위유지, 집단행위금지 등 공무원 6대 의무규정 폐지

한반도 평화통일

- 남·북 공무원노동자 교류협력 사업 전개
- 개성공단, 금강산 기행 추진
- 남북합의 이행, 평화 협정 체결 촉구 투쟁 전개



추·천·사

전호일1 김태성



양승태를 구속시킨 법원본부!

2018~2019년은 법원본부의 활약이 매우 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투쟁을 완강히 하며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단체교섭에서는 법원내 비정규직 폐지와 노동법원 설립 추진, 수많은 조합원 권익 쟁취까지... 이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법원본부에서 위원장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전호일입니다. **노병환** 서울 용산구지부 조합원



저는 연금투쟁하며 노조간부가 됐어요!

저는 조합원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노조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연금개악의 본질과 우리의 투쟁방향에 대한 명쾌한 강연과 집회에서의 강력한 연설, 투쟁의 선봉에서 몸 사리지 않고 싸웠던 전호일 후보가 떠오릅니다. **박시현** 충북 진천군지부 조합원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남양주시공무원노조는 올해 9월 공무원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전호일 후보와 단체교섭, 연금, 공무원노조 현안 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겸손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공무원노조로 가입을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상영** 경기 남양주시지부 조합원



2030 청년 사임하면 전호일 선배님이죠~

9기 김주업 집행부 들어오고 나서 2030 청년공무원 수련회 등 청년간부 양성사업이 참 많이 진행됐는데, 수련회에 가면 항상 전호일 후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공무원노조의 미래다"라며, 격식 차리지 않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이 분이 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이 돼야 연속성 있게 청년사업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최혜란** 경남 김해시지부 조합원

대정부투쟁 접전을 끝내는 결승골

연금개악 저지, 임금삭감 저지
2020년 공무원노조의
연승행진이 시작됩니다.



전호일 **1** 김태성

무능력무책임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



위원장 후보

사무처장 후보

날카로운 귀 신중한 입

최초의 여성후보

2 김경용 서정숙

과배기 하나로 마음과 마음을 이었습니다



2002년 5월23일, 처음에는 단 세 명이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영천시장에서 과배기를 띄어와
정성껏 포장을 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과배기 하나에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청지부는 조합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과배기 지부장’

김경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믿고 맡길 단 한 사람 김경용



실력으로 검증된 전략가 위원장

김경용은 5.1절 노동절 휴무 확보를 전국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입니다.
서울시청 지부장으로 정책적 능력과 치밀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투쟁도 조직도 책임질 수 있는 김경용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3% 강제할당
퇴출제로 조합원의 생존권이 극단으로 내몰릴 때 16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해 3,000명의 조직을 만든 김경용.
믿고 맡길 단 한 사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여성 지부장, 여성 경기본부장

2011년 의왕시청 내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성추행, 성폭력을 일삼는
사무관퇴출 운동을 벌여 6개월 만에 퇴출시켰습니다. 경기본부장 시기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위해 전국 최초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가장 긴 농성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일잘하는 똑순이 서정숙

서정숙은 PSI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동아시아
소지역 공동의장, 세계집행위원, 세계 여성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정숙이야말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길 책임자입니다.



최초의 여성후보 서정숙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무능력

실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보수위원회 등
교섭전략의 실패

무책임

대정부교섭 체결 시 조합원의 의사도 묻지 않은
비민주적 직권조인

무기력

대책없는 교섭에만 매몰되어
무기력한 노조로 전략
세금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3무(無)노조**

이제는 바뀔시다
김경용, 서정숙으로 선수교체!

“
제대로 된 전국공무원노조,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산별노조 원칙에 기반해서
노조다운 노조, 민주노조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를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약속

- 1 투쟁은 사람이 만든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 현장간부 조직관리 및 협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ARS, 설문, 현장방문 등 조합원 의견 수렴
 - 회의결과, 재정, 조직운영 등 조합원에게까지 공개하는 투명한 노조
- 2 노동조합의 20년 미래를 설계하고 투쟁하는 산별노조 안착
 - 쟁의중심의 현재 조직실을 쟁의실과 조직강화실로 분리를 통한 조직강화
 - 예산분석 낭비요인 제거 및 회계관련 업무메뉴얼과 전산처리 시스템 통일
 - 단일노조, 산별노조의 힘인 재정, 규약, 규정, 규칙의 단일화 완성
- 3 정파가 아닌 조합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준비된 대정부교섭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말로만 '대통령과 직접 교섭'이라고 했지만 실제 한 것이 있습니까?
조합 결정에 복무하다 희생된 해고자 동지들을 배제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문구 삭제
대정부교섭에서 직권조인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경용 서정숙이

“ 준비된 정책과 투쟁 전략으로
제대로 된 대정부교섭 만들겠습니다
잃어버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사와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
대정부교섭 승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준비된 정책+치밀한 전략+현장 투쟁력
삼각편대 전략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를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약속

- 1 **단체교섭, 시작과 체결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
 - 총투표로 조합원에게 묻고, 교섭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
 - 기칭 교섭위원회(정책+교육+법률자문) 상설화로 책임지는 교섭 진행
 - 단체 교섭 규약 보완으로 교섭원칙 수립
- 2 **제대로 된 교섭력 확보 : 대안을 갖고 투쟁으로 쟁취**
 - 교섭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투쟁으로 돌파하자
 - : 지부따로, 본부따로, 조합따로, 따로국밥 교섭 극복
 - 직렬별 의견그룹 운영으로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
 - 입법부를 상대하는 국회대응부서 상설화
 - 정책연구원 전임연구원 확보하여 정책역량 강화
- 3 **조합 결정에 복무하다 희생된 동지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책임**
 - 해직자 복직은 반드시 쟁취!

조합원 여러분! 힘드시죠? 김경용, 서정숙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지만 실질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오르는 물가와 집값에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합원의 삶에 힘이 되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프로젝트

<p>● 보수인상 6%</p> <p>약5만원/월</p>	<p>● 초과 근무수당 (30시간 기준)</p> <p>약72만원/월</p>	<p>● 퇴직수당 현실화 (민간대비 100%)</p> <p>1억2천만</p>	<p>● 기초 연금지급</p> <p>30만원/월</p>	<p>● 임금피크제 없는 연금개시 연령과 정년일치</p> <p>1억2천만원 (5년)</p>
------------------------------------	---	--	------------------------------------	--

“말만 화려하고, 실제 제대로 된 성과는
없는 것 아닌가요?”



걱정마세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를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약속

1 빼앗긴 임금과 수당, 책임있게 찾겠습니다

- 보수인상 : 100인 사업장의 65%에서 100%까지 하위직 실질적 생활임금 쟁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체계 개선
- 소득공백 없도록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일치
- 퇴직수당도 민간수준으로 상승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전국민 반값 등록금 투쟁 확장)

2 조합원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정당하게 수당받자 : 일괄 지급하는 여비 등 기본급 형태의 수당은 기본급으로 전환
- 시간외근무수당제도 2020년 이내 책임 개선
- 공무원전세자금 지원 확대, 건강검진비, 맞춤형복지포인트 전국적 상향평준화
- 직무급제반대, 직급제철폐, 단일호봉제 쟁취!

지방자치 역행하는 '갑질'

행정안전부 폐지로

민중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1 통제와 간섭으로 균림해 온 행정안전부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2 노동중심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대정부 교섭의제로 담고 노조답게 싸우겠습니다.
- 3 전국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국민적 의제로 주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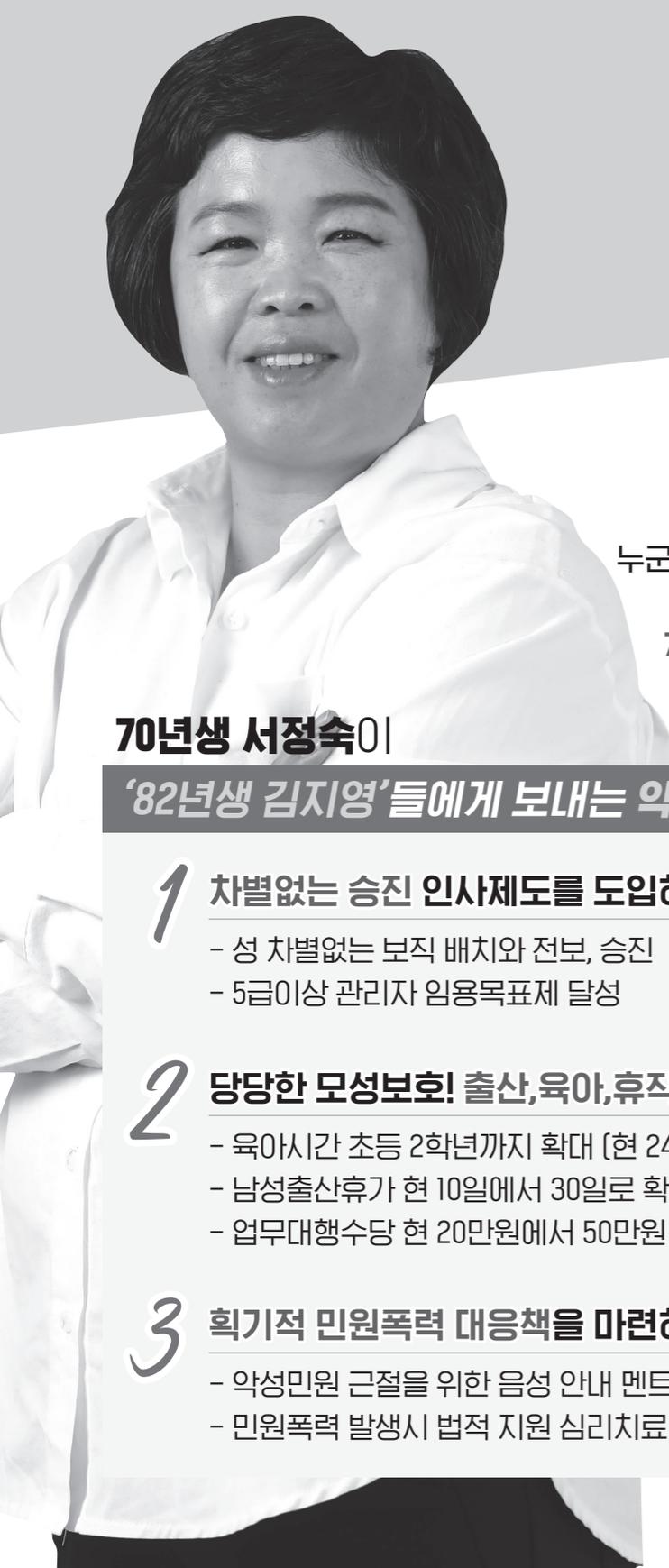
“행안부 폐지, 쉽지 않을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내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를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약속

- 1 **제대로 된 지방자치 : 지자체 통제하는 부처 갑질 행안부 폐지**
 - 지방행정관련 입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제안하도록 제도화
 - 지방분권 개헌 등 분권운동에 참여
 - 지침으로 통제되는 임금, 노동조건 등 분쇄
 - 제왕적 자치단체장 견제 : 인사위원회/주민예산/조례 제·개정 등 적극 참여
- 2 **공무원노조의 영원한 미션 :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강화**
 -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부정부패 척결사업 전개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참여하여 정책 투명성 확보에 기여
- 3 **사회공공성 강화 등 민중을 위한 행정만들기**
 - 교육청 시설관리 외주화 저지, 자치단체 민간위탁 저지 및 재공영화
- 4 **실패한 정부정책 폐기**
 - 시간선택제공무원제, 총액(기준)인건비제, 성과퇴출제, 예산신속집행제도 등



70년생 서정숙

27년을 공무원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27년을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세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당신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누군가의 진심어린 위로와 응원이 필요했지요
우리 곁의 수많은 '82년생 김지영'들,
70년생 서정숙이 항상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70년생 서정숙이

'82년생 김지영'들에게 보내는 약속

- 1 차별없는 승진 인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성 차별없는 보직 배치와 전보, 승진
 - 5급이상 관리자 임용목표제 달성
- 2 당당한 모성보호! 출산,육아,휴직의 과감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육아시간 초등 2학년까지 확대 (현 24개월 --> 36개월 확대)
 - 남성출산휴가 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 업무대행수당 현 20만원에서 50만원 확대로 지급 의무화 및 금액인상
- 3 획기적 민원폭력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음성 안내 멘트 의무화
 - 민원폭력 발생시 법적 지원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

“성별, 나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차별없는 평등한 직장문화,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노조다운 노조를 위한 김경용 서정숙의 약속

- 1 여성과 청년 공무원에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마련**
 - 균형인사 실시 : 승진배수범위 내 여성공무원 비율만큼 승진
 - 5급 이상 관리자 임용목표제 달성(직급제 철폐 전 까지)
 - 출산, 육아 사회공동체 책임으로 : 대체인력 사전 확충, 육아시간 확대, 유급생리휴가
 - 승진의 남녀차별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관리자 성평등 교육 의무화
- 2 신규 조합원이 희망이다**
 - 청년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 전세자금 및 권역별 임대주택 지원
 - 신규 조합원 간부 육성 프로그램 지원
- 3 정부차원 노동조건 안전망 마련**
 - 조직 내 갑질 개선, 악성민원 근절, 감정노동보호 등
- 4 청년세대, 기성세대와 공감을 위한 「세대공감특별위원회」구성**
 -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공감하는 조직문화, 존중받는 일터 구성에 기여

지역과 직능, 직렬을 하나로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직능
본부

상근활동가 인력 및 정책 지원

교육청
본부

3대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국회사업 지원,
시설관리직 총원 및 외주화 저지, 지방공무원 수당차별 철폐

법원
본부

예산 및 법률안 국회제출권 확보, 법원행정처 법관최소화,
행정 정원확대, 송달집행관 증원

대학
본부

대학구성원 1인 1표 총장직선제 쟁위, 대학평위원회 설치 및
구성비율 균등

중행
기관본부

국가직 수당, 복지포인트 등 현실화

소수
직렬

소수직렬의 의견그룹 운영 통한 인사문제 개선
- 사회복지직: 승진적체 해소 및 맞춤형 복지팀장 사회복지직 의무화
- 세무직: 신설초기 대규모 임용으로 인한 인사적체 및 고령화 해소
- 임기제: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 위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지키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
해내겠습니다! 승리하는 대정부교섭
바꾸겠습니다! 정파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

Yes **해 내겠습니다**

- 노동기본권, 정치의 자유 쟁취
- 직렬별 의견그룹 운영
- 사회적 역할 확대(존재감 확보)
[부정부패척결, 공공성강화]
- 해직자 복직법 관철

No **없애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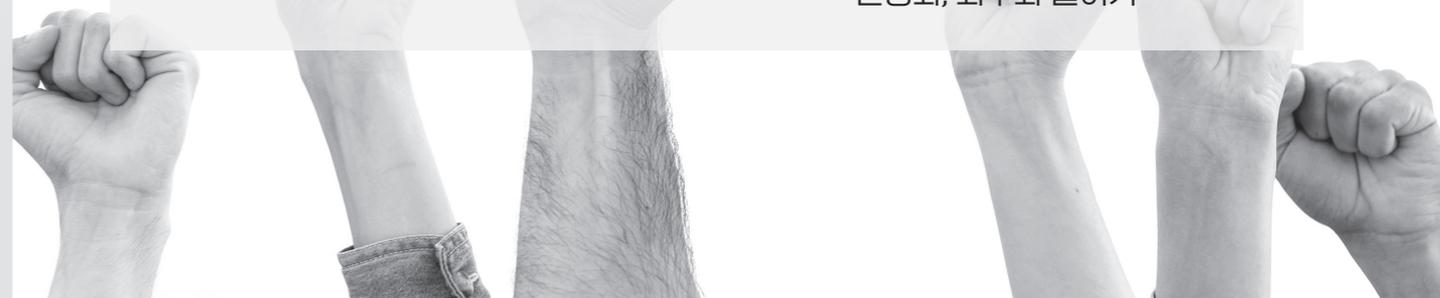
- 자신만의 정파주의
- 공무원노조특별법
- 실패한 정책(기준인건비제, 성과급,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 행정안전부

Up **높이겠습니다**

- 보수수준 : 100인사업장 대비 85%→100%
- 초과근무 기준단가 : 민간의30%→100%
- 퇴직수당 : 민간의 39%→100%
=>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Down **낮추겠습니다**

- 직장내 상사 갑질 등 권위적 문화 줄이기
- 조합내 비민주성 등 부정적 정파주의 줄이기
- 민영화, 외주화 줄이기



노조답게! 당당하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

김경용 서정숙 당신을 믿습니다



양성운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

한결 같은 삶, 날카로운 귀, 신중한 입, 위원장 후보 김경용 동지가 있어 공무원노조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아니라 항상 당당하게 살아온 공무원노동자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가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김경용, 서정숙 두 동지가 흔들리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치와 역사를 되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중남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공무원 노동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을 지켜내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김경용 위원장 후보와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가 14만 조합원의 삶을 책임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 적임자, 김경용, 서정숙 동지를 지지합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

2

위원장 후보

날카로운 귀 신중한 입
김경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기 서울시청지부 사무국장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기~제5기
서울시청지부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위원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지부장
(제7기~제9기)

사무처장 후보

최초의 여성후보
서정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 정책부장, 사무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 부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 지부장 [재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장[전국 여성 두 번째]
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세계 집행위원/여성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무원노조 대표)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2016년부터)

선거운동기간

2019년 12월 5일(목) ~ 2020년 1월 7일(화)

투표일

2020년 1월 8일(수) ~ 1월 9일(목)

결선투표시 결선투표일

2020년 1월 20일(월) ~ 1월 21(화)

공보물 배포 시 유의사항

각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임원선거 포스터와 공보물을 조합원들에게 책임있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신분증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 필참)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Tel_ 070-7728-4743, 4745 Fax_ 02-2631-1949